‘광주김치축제’ 세계화 길 열었다

어제 성료 … 외국인 1만5천여명 다녀가

전통김치 부문 현숙희씨 대통령상 수상

‘김치는 문화다’를 주제로 지난 15일부터 닷새동안 열린 ‘2008 광주김치축제’가 50만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이번 축제를 관람한 외국인이 1만5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광주시는 19일 오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특설무대에서 광주김치축제 폐막식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20면〉

‘김치는 공동체다’라는 주제의 폐막식에서는 ‘김치경연대회’ 전통김치 부문에서 1위에 뽑힌 현숙희(광주·사진)씨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았다. 묵은지 퓨전부문에서는 한민호·오주미(광주)씨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치의 세계화를 다짐하는 ‘김치의 함성-세계로, 미래로’ 퍼포먼스와 남도 들노래, 김치 비나리 공연 등 문화행사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시는 이번 축제가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열려 방문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4만여명 가량 늘어난 48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축제기간 운행된 ‘KTX 광주김치·비엔날레 관광열차’와 광주·전남 방문의 해 사업으로 추진한 ‘광주 투어버스’가 외지 단체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했다.

특히 지난해 7천700여명에 그쳤던 외국인 관광객은 1만5천여명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비엔날레를 관람한 600여명의 외국인이 행사장을 찾은데 이어 ‘해외자매·우호 도시의 달’을 맞아 광주를 찾은 일본 센다이, 인도네시아 메단시 등 해외자매도시에서도 200여명이 축제를 관람했다.

김치판매액을 포함한 입점업체들의 매출도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20억3천만원을 기록했다. 김치직거래가 6억500만원, 별미거리 6억7천500만원, 광주·전남 특산물거리는 7억5천여만원의 매출을 각각 올렸다.

시는 이번 축제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에서 스미소니언박물관과 공동으로 김치전시홍보행사를 마련하고 중국·러시아 등에서 김치마케팅을 벌여 91만달러어치를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국내외 언론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특히 미국의 디스커버리 취재단은 축제기간 내내 상주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취재했고 중국 유명 언론사 팸투어단과 잡지사, 의학전문 케이블TV 등에서도 축제 현장을 다녀갔다.

예년에 비해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 이번 축제에서는 ‘김치오감박물관’과 ‘김치담그기체험관’, 김치명인이 직접 시연을 보이고 설명에 따라 김치를 담그는 ‘김치명인 아카데미’ 등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민간중심의 축제추진위원회가 직접 기획한 이번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올해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정신 계승 마라톤 대회 19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7회 광주정신계승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시민 5천200여명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북구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하프코스(21.0975㎞) 276명, 10㎞ 748명 , 5㎞에는 4천174명이 참가해 레이스를 펼쳤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시 효령동 ‘5·18 암매장지’ 2곳

내년 3월 본격 발굴키로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암매장지로 제보받은 2곳을 내년 3월 본격 발굴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행불자 소재 찾기 사실조사위원회’가 최근 암매장 제보지인 북구 효령동 산14번지(분묘 10기)와 효령동 145-2번지(분묘 10기) 일대에 대한 현장실사를 갖고 내년 3월에 발굴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우선 발굴되는 곳은 효령동 145-2번지다.

이에 따라 시는 제보지에 대한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가 끝나는 오는 12월 분묘 개장 허가가 나오는대로 발굴 비용 등의 산출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발굴 예정지에 대한 무연분묘 개장공고, 토지사용승낙서 접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효령동 발굴 예정지는 지난 2006년 10월 암매장지로 추정된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시 관계자와 5·18유족회 대표 등이 꾸준히 현장 조사를 실시해온 곳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01년 5·18구묘역 무연고 묘지 11기 발굴을 시작으로, 2002년 광산구 2곳(소촌동, 삼도동) 등 암매장 제보지 7곳을 발굴했으며, 최근에는 남구 주월동 호반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굴된 유해 292기에 대한 발굴작업을 벌여 5월 희생자와 무관하다는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업을 종료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 디자인 명품도시로

상징 조형물 등 12개 과제 추진

2014년까지 340억원 투입키로

문화수도 광주가 디자인 명품도시로 거듭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340억원을 들여 광주를 명품 디자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명품도시 비전을 확정, 모두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도심에 디자인을 접목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타 시도와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 ▲함께 하는 디자인▲문화가 집적화된 디자인 광주 ▲통합·비움의 디자인 등 4대 기본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중점 과제는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환경친화적 공공예술 프로젝트 ▲빛고을 광주 상징 조형물 설치 ▲아름다운 간판문화 시범거리 조성 ▲디자인 광주 선포식 등이다.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은 고품격 디자인 거리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과 보도 등에 대한 시범정비를 실시하고 환경친화적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상가 등에 환경디자인 및 공공예술을 도입해 시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빛고을 광주 상징 조형물을 설치’ 사업은 빛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를 주요 교통 관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광주를 오고가는 외부인들에게 ‘명품 디자인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다.

디자인 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3월 ‘디자인 도시- 광주’ 선포식이 열리고 광주 도시 디자인 스쿨도 개설, 운영된다.

시는 또 도시 디자인 사업을 시·민 전문가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2월께 ‘디자인 도시 광주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민·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 공모전은 ‘공공디자인’, ‘도시경관’, ‘광고물 창작’ 등 3개 부문에서 실시되며, 우수작은 디자인 사업에 채택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5월 정신계승 염원 추모 음악회 열려

국립 5·18 민주묘지 사무소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가 5월 정신계승을 염원하는 풍성한 가을 음악회를 열었다.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와 5·18 기념재단은 지난 18일 민주묘지 야외무대에서 ‘제5회 5·18 추모음악회’를 개최했다.

시민과 학생 등 1천 명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는 세계대회 우승전력을 가진 배틀러크루의 ‘B-boy 공연’을 비롯해 빅사이즈의 힙합댄스 공연, 크로스오버앙상블 허브의 퓨전 음악, Y꼬마&소녀걸스의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됐다.

또 가수 김용임·진주아, 성악가 김경천·채유리 등의 다양한 초청 공연도 이어졌다.

특히 5·18 기념재단 윤광장 이사장의 ‘청소년과 함께하는 5·18 이야기’ 코너에서는 초·중학교 학생 100명이 대거 몰리는 등 5·18 민중항쟁의 참뜻을 배우려는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